

기발하고 건강한 세계민담 기행

《상상력의 보물창고》 펴낸 이남호씨

이교수의 민담 소개는 문학양식의 하나로서 소설의 죽음을 전제로 한 일이다. 즉 지금은 서사양식의 혼돈기여서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은 상태라, 근원으로 되돌아가 에너지와 방향성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이 책의 제목을 '상상력의 보물창고'라 이름붙인 까닭도 이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우리 소설들은 너무 서사의 측면에서 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현재 나오는 판타지 소설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타지 양식의 등장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판타지 소설은 천박하고 유치해 민담과 같은 건강함이 없습니다.”

1980년 《조선일보》를 통해 등단한 이교수는 그간 《한심한 영혼이》, 《문학의 위족》, 《녹색을 위한 문학》 등의 평론집과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 《느림보다 더 느린 빠름》 등의 저서를 냈다. 《현대문학》에 연재했던 이 '민담기행'은 1998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끝마쳤지만,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다시 민담 소개를 계속할 생각이다. 지금은 올해 민음사에서 나올 《박두진 문학전집》에 몰두하고 있다.

— 김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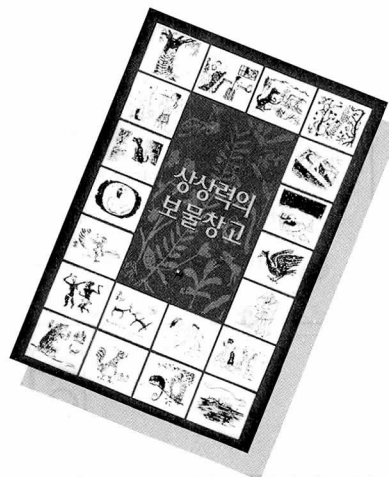
어느 민족이나 자신들의 상상력을 담은 신화·전설·민담이 전해온다. 각 민족 고유의 정서를 담은 이 이야기들은 프로프의 연구결과가 말해주듯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표현한다. 어린이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 옛이야기에 매혹되는 이유도, 옛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현대 대중물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문학평론가 이남호 교수(43, 고려대 국어교육학과)가 펴낸 《상상력의 보물창고》(현대문학)는 이런 옛이야기 중 '민담'에만 초점을 맞춰 가려뽑은 52편을 담았다. 원전은 인도, 아미존 유역, 이스라엘, 아라비아 지방 등 전세계 각지에서 전래된 이야기들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더 우리 정서에 가까운 이야기로 윤색했다.

“우선 옛날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습니다. 단순한 데다 기발한 상상력이 많고 인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나 알레고리, 비유와 같은 시적 기교들이 풍부하게 활용돼 마음의 눈인 상상력이 가장 밝고 맑게 빛나는 공간이 민담이나 전래동화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있고 기발한 이야기라서 세계의 민담을 한글로 옮긴 것만은 아니다.

“근대소설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설 역시 근대문학의 한 양식입니다. 문학양식은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죠. 따라서 소설은 쇠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사 전통 자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양식으로 전래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 그런 전통을 만날 수 있죠.”



작은 아이디어로 '큰 돈' 버는 전략

《달려가 보이다》 펴낸 황인태씨

있는 외국을 추천한다.

“하지만 책은 그저 책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방법을 소개할 뿐입니다.”

책에 소개한 수출 아이템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 세상은 금방 변한다. CNN 기자 노릇을 하면서 남과 다르게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황인태씨는 이 책에 소개한 정보들을 중흥으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보이달라고 한다. 바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디베이스다.

“대학교 1학년 방학 때 동남아를 돌며 자석식 오프너, 1회용 샴푸, 견본 화장품 등을 팔았습니다. 주위에 흔하기 때문에 외국도 마찬가지로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부분을 보는 데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책 끝에 나라별 색상·디자인·동물 선호도를 붙였다. 돈은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를 따라다닌다. —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이율배반적이다. 자본의 흐름이 사회 전반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달려가 보이다》(푸른숲)는 돈이 들고 나는 시스템을 통해 돈버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도 벌 줄 모르죠.”

황인태씨(35, 와이즈디베이스 전략기획실장)는 경제적 사고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는 푸른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시스템을 알면 간단한 진리다. 신호등을 지키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지고 세금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문화·정치·역사·자연환경·종교·관습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유기체로 이해하면 길이 보이죠.”

1991년부터 4년 동안 CNN 취재기자로 전세계 137개국을 누비면서 얻은 비즈니스 시장체험과 시장 분석 경험을 활용해 경쟁력이 높은 전략사업 아이템을 소개한다. 전국민의 70%가 겨드랑이 악취제거제를, 39%가 향수를 사용하는 포르투갈은 가격경쟁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내 향수 등의 수출이 유망하다. 또 국토의 3분의 2가 초원인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다수가 이동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라 휴대용 가스버너나 코펠이 많이 쓰인다. 문화나 자연환경을 염두에 둔 마케팅 접근법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물품과 그것을 소비할 만한 국가를 연결짓고, 중고상품으로 승부할 수





동시대 삶 껴안은 노래의 현장

《노래,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 펴낸 조용호씨

세계일보 문화부 조용호 기자(37)는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 우리시대의 노래를 찾아 떠돌았다. 태안반도 끝머리의 외로운 포구 채석공에서 정태춘의 <서해에서>를 만나고, 매서운 칼바람 부는 광주 망월동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비장미를 다시 더했다. 당대인의 희로애락을 담아냈던 노래와 함께 떠났던 여행의 기록을 모아 《노래,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이룸)를 펴냈다.

“80년대에 노래운동을 하면서 뽕짝 극복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라진 지금, 형식은 비록 남의 것을 빌려왔다고 할지라도 대중들의 애환을 담은 대중가요도 우리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리는 노래에는 밀바닥 대중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녹아들어 있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울고 넘는 박달재> 등 소위 뽕짝부터 <진주난봉가> 등의 민요, <맹인부부가수> 등 민중가요까지 노래에 얽힌 사연들과 함께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지역의 풍광과 느낌을 포착해 실었다. 전후 판잣집에서 짧은 사랑을 나누고 헤어진 후 소식이 끊긴 남편이 행여 돌아올까봐 부산역 주변에서 맴도는 어느 좌판 행상 할머니의 사연이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가사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매일 한 번씩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혼자 떠돌았습니다. 노래를 좀더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여행하면서 노래 테이프를 몇번이고 들었어요. 노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경관과 어우러지면 때로 그 노래들이 경건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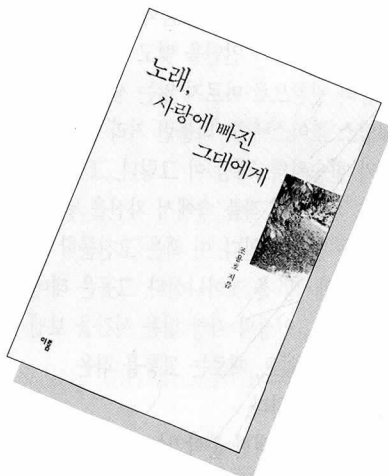
그는 80년대 초 노래운동의 현장에 서 있었다. 서울대 신문학과에 재학중 결성된 민요반의 창단멤버였고 졸업반 때 민간단체로 만들어진 ‘민요연구회’에서 민요연행패로 활약했다. 특히 상여소리에 심취해 87년 이한열 장례식 때는 운구행렬 선두에서 상여소리를 부르기도 했다.

“80년대에는 노래가 시대를 건디는 힘이었습니다. 노래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것의 형식에만 치우쳤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강요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노래를 즐기고 팍팍한 세상에서 위로도 얻으며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올해 뒤늦게 소설가의 험난한 길로 들어섰다.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단편소설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로 등단했다. 80년대를 낭만적 열정으로 지새웠던 이들의 고뇌를 형상화했다. 대학 입학 때부터 키워온 작가의 꿈을 이룬 것이다.

“문학 초년생으로서 앞으로 대중가요 같은 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오면서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것입니다.”

— 박천홍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길을 못찾고 계십니까?
‘코아트’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출판업계의 침체!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입니다.
정보의 시선이 인터넷으로 흐르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인터넷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해
코아트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기획력과 디자인 감각을 토대로
출발부터 성공까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전화: 275-2617 (#108.113), 인터넷 상담 환영: 268-8276(박강수 부장)
Web Hosting 서비스 / 웹매거진 제작 / 홈페이지 제작 / 서버구축 및 관리 / 인쇄홍보물 기획·제작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출력실!

▶ 다국어 출력 ▶ 자동대첩 ▶ 4.6인치출력 ▶ 인터넷출력 국내최초 시작!

188GB

365일 무정지시스템

강력한 시스템 운용으로 대용량의 작업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국내 최대의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지 처리능력 탁월)

- 짜임새 있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삼분각 서체 보유
 - 확장한자, 일본어, 대만어 포함 '98 한글서체 전용보유
- 4x6인치 필름출력 / 토탈드림스캔 / HP컬러실사출력 / Xerox Acolor출력 / 자동제판 / 컬러복사 / CD백업

자유/신뢰/기술을 제공하는 since 1991
그린테크(주) Tel: 275-2617(안내118), 268-8276(상담)
GREENTECHNOPIA CO.,LTD http://home.greentek.net/